

뿔난 여수지역민...“여수해상케이블카(주) 운행 당장 중지하라!”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단체 등 지역사회 한목소리로 해상케이블카 행태 규탄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 기부금 미납
지난해 전남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주) 240억으로 가장 많은 수입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시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장 접수

여수시의회가 여수해상케이블카(주)를 상대로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여수시에는 사회공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시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재현 의원은 이와 관련 1일 제1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공익기부금 이행 촉구 등을 요구하며 여수시 행정의 현실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권 시장에게 “회사탈취 미수와 관련,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지구 특허 관련 인사와 관련설에 관해 확인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제소전화해에 관한 소송에서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회사를 특정인에게 매도하라는 내용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성을 못 느꼈다.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

다”고 덧붙였다.

고희권 의원은 “법원은 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소한 신청에서 여수시에 승소 결정했다”며 “여수시의 공유재산과 시민들의 값진 회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민들과의 공익기부 약속을 저버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시는 부도덕한 업체의 행태를 좌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고희권 의원은 권시장에게 “우리시에서 수정동 자산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전남도의 허가조건인(주)포마에서 케이블카 운영에 필요한 수정동 주차장이 없게 됨으로 캐도사업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여수시는 케이블카 운행 허가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전남관광지 입장수입으로 918억 원 중에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40억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

여수가 전체 입장 수익 363억여원으로 도내 22개 시, 군 중에서 가장 많고 그 안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수입이 월등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월등한 수익을 낸 이면에는 여수시가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각해 준 점,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며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사업 성공을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기부약정이 강압에 의한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담당자였던 여수시 공무원 임모씨를 직권남용(예비적으로 공갈 수뢰죄)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접

수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여수시에 101억 원을 기부했는데 자발적으로 돌산기반공사 33억, 강제로 오동도공영주차장 53억, 매출액의 3% 15억을 기부했다고 했다. 이는 전례상 찾아볼 수 없는 기부로 회사의 개발 사업비 및 중소기업규모에 비해 볼 때 충분히 기부했다는 입장이다.

권시장은 기부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요인까지 개입된 법적 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이견 부분에 대해 쌍방이 원만하게 수긍하는 그런 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케이블카 측이 강제제단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여수 학생들에게 도음이 되고 기부자의 의사가 중요하니 양자 간 합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수긍하는 조정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민들의 여론은 “여수해상



케이블카를 중단시켜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돌산주민들과 단체 대표들은 입

장문을 통해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 파기, 더는 못 참는다. 파렴치한 기업에 더이상의 배려는 없다.

해상케이블카 당장 중지시켜라’고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최행환기자

지역주민 무시하는 ‘똥공장’ 결사반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건축심의회...봉두지역 주민 설명회 거쳐라
진동하는 악취로 고통 받고 있어...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소리봉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와 소리봉두지역 주민 100여명이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리봉두지역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설치에 대한 결사반대시위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울촌면 도성마을로 추진 중이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이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소리봉두 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은 시에 수차례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해결책이 없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사반대 시위를 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직접적인 이해대상자인 소리봉두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봉두2리 일부 주민들만의 밀실 동의를 받아 마치 소리봉두



지역민들이 찬성에 동의 한 것처럼 하는 행정은 밀실야합행정을 규탄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여수시가 일부 몇 명의 지역민들을 부추겨서 깨긋한 침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

화 사업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은 소리봉두 주민들에게 폭력이나 다름없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수시, 전남도, 환경부는 사후영향평가를 정확히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원회 김규협 이장은 “최첨단 돼지축사라고 했던 s농장에서는 날마다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의문의 액체 무단방출이 있었고 여수시 기후관리과의 행정 처분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진동하는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이 들어선다면 여기 소리봉두 지역은 죽음의 마을이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분노했다.

한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건축심의회는 봉두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쳐라는 결과를 냈고 날짜를 조율하는 중이지만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기까지 험난한 난관이 예상된다.

최행환기자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의중이냐?”



12월9일 여수신단 환경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11차 민과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장 입구.

김영주 기자

제주그리고... 여행투어

제주 선상 해돋이와 한라산 등반

2019년 1월 1일 ~ 2일 (1박 2일)
30명(최소 15명(출발))

첫째날

- 해운항 도착 (7:40 도착예정) > 선상 해돋이
- 포식: 해운항 > 한림시
- 시행 > 한라산(한림(도사역)) > 선상역 <-> 선상역
- 8월 > 선상역 > 주상절리 > 올레 > 석부작 > 대마도 > 올레 > 금정리 > (대마도) > 노정리
- 중식: 고동어촌 (한라산행선 > 도사역)
- 한라산 한라산행
- 석식: 한림시
- 숙소 도착

둘째날

- 숙소 > 포식 > 출발 (포식: 숙소)
- 소정선단
- 스카이라이프 > 성암단속대
- 중식: 모은대지불고기
- 죽목재정
- 제주항 도착 (15:50 도착 예정)

■ 조식2회, 중식2회, 석식1회 / 숙박료 (다인실-2인1실은 별도요금) / 선박료 / 일정에 준한 입장료 및 차량료

→ 1인 19만원 (식사 및 거대도 숙박비는 별도입니다)

※ 남 여대사 선배 및 현직생원에 따라 요금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배를 꼭 지원, 제언도구, 거대 배상여은 개인 필수품으로 지참바랍니다.

→ 선박 및 현지 시장게 의하여 대개 일정에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여서동7길 18, 1층

☎ 1666-7478

☎ 010-2631-5440

여수시의회 소식

문갑태 여수시의원, 아파트 인접 안산동 셀프세차장 소음 해결 촉구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안산동 부영 5차 아파트 인접지역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과 관련해 소음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해당 세차장은 아파트 인근에서 올해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이후 인접동 입주주민을 중심으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세차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평온하던 거주공간이 투쟁의 공간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 여부를 시 집행부에 물었다.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는 세차장 폐쇄, 차선책으로는 차폐막, 분진 제거시설 설치, 영업시간 조정, 야간 소음, 밀폐형 지붕막 설치 등이 언급됐다.

김기재 건설교통국장장은 “건축물 위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차장 입지가 가능하고, 세차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의 주원인인 세차시설물은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세차장업도 별도 신고 없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유권해석과 판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의원, “여수시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연 법적대응하라”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과 관련해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이날 1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한이 2년여

가 다 돼가도록 여수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17년 말까지였으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삼부토건은 최근에도 지구단위계획서 보완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여수시가 불허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한 상포지구 투자자들의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력과 시비 낭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보완 연장 불허와 관련해서는 “준공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4일 삼부토건에 최종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제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담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강재현 여수시의원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미납 행정력 동원해야”



강재현 여수시의원은 2일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과 관련해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옛 여수포마)의 태도와 여수시의 행정을 함께 지적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재현 의원은 이날 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카드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기업의 마인드도 큰 문제지만 초기대응 미흡으로 여수의 관광이미지 실추는 물론이며 치명적인 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은 기부금 미납 관련 케이블카 측의 태도를 문제 삼는 한편 “나쁜 기업으로 매도만 해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행정력을 동원해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불성실한 모습은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공익기부금 미납금 합외에 대해서는 “시가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케이블카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 이 부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종섭 여수시의원, 수산물특화시장 문제해결 재촉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주종섭 의원은

“오늘까지 180일간 농성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이 안타까워 다시 질의를 하게 됐다”고 질의 배경을 밝혔다.

주 의원은 양측이 제기 중인 소송사항과 국비, 시비 지원 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 등 지금까지 진행된 갈등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2004년도부터 시정에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다.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권을 상인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상인회가 2010년 해체됐다가 2014년 여수시에 정식으로 등록됐으면 아케이드 관리권은 자연히 상인회에 맡겨야 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주식회사의 요건인 주식발행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주 의원은 “상인들이 주식회사의 주식이 발행된 사실이 없다는 주식 부존재 확인의 소

를 제기한다고 한다. 특화시장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며 시장관리권 유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공과금 등을 재정산하는 조건으로 우선 입점해서 영업을 재개하자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아케이드 관리권에 대해서는 “상인회 등록은 취소가 됐지만 주식회사도 아케이드를 관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의 주식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성미 의원, 돌산~연도 잇는 지방도 863호선 국도 승격 촉구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돌산~화태~금오도~안도~연도 구간 지방도 863호선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19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은 발의한 ‘남해안 관광 휴양 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63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지방도 863호선은 여수 남면 연도리에서 광양 다압면을 잇는

전라남도의 지방도이다. 이 중 여수 남면은 섬 지역으로 도로연결을 위해 총 4개의 연도교 건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금오도와 안도를 연결하는 연도대교만 준공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돌산~연도 구간의 국도 승격을 통해 화태~대두라도~금오도~연도 구간 연도교사업의 국가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문에는 이 구간(31.5km)의 국도 승격 촉구를 포함해 정부가 섬과 섬, 섬과 육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 지방도의 국도 간선도로망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할 것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각

정당,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박성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화태~백야 구간과 돌산~연도 구간이 연결된다면 연계교통망이 구축돼 지역 개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돌산~연도 간 지방도 구간의 국도 승격과 이를 통해 서남해안관광도로인 국도 77호선의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송영선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 사회문화 확립을 위해 국가와 정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
주승용 부의장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출, 4선)이 3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 사회문화 확립을 위해 국가와 정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심사기준으로는 준법성 지표, 사회공헌성 지표, 반부패정책성과 지표, 지역주민인식도 지표, 재정경제성 지표 등 5개 지표가 사용됐으며, 주 부의장은 300명의 후보자 가운데 정치부문 4명의 수상자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주 부의장은 “청렴함은 성실함과 더불어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을 수상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없는 청정담당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입법 활동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주 의원 “소방공무원 간 처우 격차 줄어 들고, 국가의 책임과 지원 커 질 것으로 기대”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

이 용 주 국 회 의 원 (여수갑, 무소속)이 18일 최근 논란이 점 점 커지고 있는 만홍지구 택지

서 만홍지구 택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 10여명과 중앙동 의원 사무실에서 면담(16일)을 갖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비상대책위는 첫째,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아래 4세대는 축진지구에서 제척할 것, 둘째, 평촌마을 주민의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른 것, 이 두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시청 앞 집회와 매점장 전면봉쇄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 여수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책 사업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LH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최근 LH로부터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여수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예정’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여수시와 비상대책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며,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여수

시는 만홍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평촌마을 주민들의 개발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반대여견이 모아지면 만홍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며 “여수시는 비상대책위와 약속한 대로 평촌마을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앞으로 만홍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논란이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 친환경 최우수의원상 수상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이하 센터)의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에서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의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해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17명을 선정했다.

7대 여수시의회 개원 이후 환경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백인숙 의원은 특히 환경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등에 관한



조례 등 환경관련 3건의 조례 제정에 대한 조례,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등에 관한

이외에도 백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2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지를 남해안 남종권이 공동 유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해 채택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근 여수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환경문제 관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 개최에도 노력했다.

2019년 1월에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8월에는 ‘환경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백인숙 의원은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친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해온 결과 이렇게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수,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여수를 만들기 위한 연구활동과 정책대안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해광 기자

전남도의회 소식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이광일 전남도의원, 공동체식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가 청소년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3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에 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조화롭게 성장·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됐다.

이광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



(이광일 전남도의원)

장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활발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식을 높이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

전남도의회 남도관광발전연구회, 전남관광 발전방안 모색
최의원, 남도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도관광발전연구회(대표 최무경 의원)는 2일 도내 관광지 활성화와 방안 마련을 위해 전사대교, 오도항, 기동삼거리, 항쟁기념탑, 김환기 가족 등 신안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 현지활동을 펼쳤다.

이날 남도관광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강풍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체험하지 못했다. 이에, 의원들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체험하려 와서 허탕치고 돌아가기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으며,

“갑자기 휴장이 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관광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도관광발전연구회 대표인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남도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

강문성 도의원,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레관리사 배치 확대” 촉구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레관리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관에 사레관리사가 별도 배치되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기존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을 위해 전담 사레관리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관은 도민들과 가장 먼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는 복지서비스의 최첨단이다”며, “지역사회 내 모든 연령과 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문성 전남도의원)

집행부에 요구했다.

주민밀착형 복지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오은진 기자

여수시,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행정 부문 대상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확보, 여순사건 시민추진위 구성 등 적극 행정 높게 평가

여수시가 지난 6일 서울평화문화대상연구원과 서울일보가 주최, 주관한 '2019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자치행정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국제, 경제, 문화, 행정, 체육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여수시는 남만포차 이전,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확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웅천지구 문화, 교육, 복지 융복합 공간 조성 등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여수시는 올해 국비예산 2000여 원을 확보해 민생현안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사랑방좌담회와 열린 시민청원, 시민공감 이야기마당 등 시민 소통 정책에도 힘썼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시민중심과 균형발전에 두고 지금까지 힘 없이 달려왔다"면서 "앞으로 박람회장 활성화,

202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를 가했고, 사랑방좌담회와 열린 시민청원, 시민공감 이야기마당 등 시민 소통 정책에도 힘썼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시민중심과 균형발전에 두고 지금까지 힘 없이 달려왔다"면서 "앞으로 박람회장 활성화,

202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국회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호소'



6일 국회도서관서 칼마이던스 여순사건 사진도록 출판기념회 열려
권 시장, 여수시 웹드라마 동백 통해 여순사건 국내외에 알리는 등 많은 노력
여순사건 20대 국회 5개 특별법안이 발의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권오봉 여수시장이 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948, 칼마이던스(Carl Midans)가 본 여순사건' 사진도록 출판기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날 권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순사건은 해방 정국의 시대적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라면서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반란의 땅으로 인식되며, 지역민은 오랜 시간 침묵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1999년 특별법 제정때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4?3사건을 언급하며 "여순사건은 20대 국회에서 5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당시 유복자로 태어난 분들이 벌써 70세를

넘겼고,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한분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고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권 시장은 "여수시는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 추념식을 가졌고,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당시 종군기자였던 칼마이던스가 여순사

건 사진자료를 남겨놓은 것은 천만다행이다"면서 "이번 사진도록이 정치권과 학계, 국민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칼마이던스는 라이프지 종군기자로 1948년 여순사건을 현장 취

재해 사진 329점을 남겼다. 여수지 역사학연구소는 칼마이던스의 사진 중 98점을 선정해 도록으로 만들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도록을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환관 기자

우리 동네 소식

여수시 소리면 새마을부녀회, 고추장 나눔

지난 6일 여수시 소리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문계남)가 덕양리 경로당에서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회원 30여 명은 고추장 12통을 담아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세대 등에 전달했다.

문계남 회장은 "경로당 어르신과 취약계층 세대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고추장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읍촌면 생활개선회, 김장김치 나눔

지난 6일 여수시 읍촌면 생활개선회(회장 정순자)가 직접 담은 김장김치 2박스(1박스 8kg)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개간지에서 재배한 메주콩을 관

매해 행사 비용을 마련했다. 정순자 회장은 "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배추 등 채소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김장김치가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충무동, 취약계층 후원 이어져

여수시 충무동은 지난 7일 여수성광교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30박스를 후원했고, GS칼텍스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이 연탄 1900장을 관내 7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수성광교회와 GS칼텍스는 사회복지시설 후원과 동절기 연탄나눔 봉사 등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성을 전하고 있다.



소노캄여수, 한려동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나눔

지난 4일 소노캄여수(구 엠블호텔) 직원들이 직접 담은 김장김치 50박스를 여수시 한려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한려동은 김장김치를 독

거노인, 장애인,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했다. 소노캄여수는 매년 겨울이불 후원과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여수시 삼일동, 사랑의 김치 나눔 '훈훈'

지난 5일 여수시 삼일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지나)가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한곡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본부장 강수진)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삼

일동 자원단체 회원과 호남화력봉사단, 동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담은 김치 5kg 100박스를 홀로 사는 어르신과 마을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여수시 주상동, 온정 나눔 손길 이어져

여수시 주상동은 지난 4일 '사랑의 연탄배달'과 '지역아동센터 연말 짜장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 연탄배달을 주관한 (사)여수시 청년회(회장 김민재)는 주상동 소외계층 5가구에 연탄 1000

장을 전달했다. 매달 짜장데이를 진행하고 있는 주상동 연합청년회(회장 정근동)도 연말을 맞아 석창지역아동센터 아이들 30명에게 탕수육과 짜장면 등을 제공했다.



여수시 시전동,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열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지나)가 지난 3일과 4일 '2019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사랑의 온기 나눔 캠페인' 모금액과 새마을

남녀지도자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지나)는 직접 담은 김장김치 8kg 150박스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120세대와 경로당 30개소에 전달했다.

오은진 기자



박원순서울시장, 여수중심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 적극지지 약속

유치위 간담회서 입장 밝혀...국회 차원 논의도 본격화될 듯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의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를 적극 지지키로 해 유치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남해안남중권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COP28 유치 추진' 워크숍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들을 만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준비위원회(이하 유치위)에 따르면 유치위는 이날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COP28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COP28 유치를 확실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인연을 소개하며 "국내에 유치할 경우 남해안 여러 도시가 함께 하겠다"는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만수무답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유치위가 요청한 자문위원직에 대해 적극 수락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다"며 "모든 과정에서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유치하고 이 지역에서 반드시 COP가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유치위가 요청한 자문위원직에 대해 적극 수락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의원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남해안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의원들과 힘을 모으고, 당내에서 공론의 장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며 힘을 보탰다.

한해광기자

여수시, 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경관지구 지정' 관리될 전망

건축물 높이가 3층, 12m이하로 한정,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 입지 제한



국로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리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80만㎡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두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술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

돌산읍 방죽포~소울 해안가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 12m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여수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일정거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남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축 일원을 특화,시가지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한다. 이규원기자

여수일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7길 18, 1층

고문 박균상 / 회장 정민근 / 발행·편집인 한영래

편집국장 최향란 / 대표 김영주 / 시민기자 대표 차기철

대표전화 : 061 654-8885

기사제보·독자투고 : 061 654-8885, 팩스 : 070 8220-8808

기사제보·배달안내 : 061 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 061 654-8885

*등록번호 : 전남 다 00343(주변) *등록일 : 2014년 7월 11일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여수시의회, 박중석·고효주 전 의원에 ‘3려통합 공로패’

서의장, 3려통합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개최 전국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성장 원동력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3려 통합 당시 여수시의회의 대승적 양보안 마련과 의결, 이행 등 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박중석, 고효주 전 시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간 3려통합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되는 두 전 의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은 이날 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진행됐다.

박중석 전 의원은 1994년 3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이어진 3려통합과정에서 여수시의회 3려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범시민 3려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고효주 전 의원은 여수시의회 3려통합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겸 범시민 3려통합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전 의원의 가장 큰 공로는 여수시의회의 의원정수를 28명에서 14명으로 감축하는 등 양보안을 만들어 실행한 것이 꼽힌다. 당시 의원정수를 여천시,여천군의회의 의원정수 합계인 14명과 동일하게 감축함으로써 3려통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에서 주도한 3차례에 걸친 주민의견조사가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주민발의로 3려통합 성공을 이뤄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전체회의 간담회에서 두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서완석 의장은 이날 공로패를 수

여하며 “3려통합을 위해 여수시의회가 스스로 의원정수를 2분의 1로 줄이고 행정동을 절반으로 통폐합시킨 사례는 지방자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로서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3려통합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 개최는 물론 우리시가 전국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공로패를 받은 박중석 전 의원은 “3려통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효주 전 의원은 당시 정부안으로 확정된 2여 분할통합안이 3려통합으로 이어진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며 “감회가 깊다. 3려통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여수시



의회 의원들과 3개 시·군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현재의 통합 여수시는 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해

여기 어때? / “여수바다장어”

추워진 날씨에 몸보신!! 장어탕 어떠세요?

지난주부터 부쩍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인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고 몸보신도 할겸 오늘은 장어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 곳은 미평에 위치한 “여수바다장어”



미평주민센터 바로 근처라 찾기가 쉬웠습니다. 여수지역은 식당밀집 지역의 경우 주차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긴 주차장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있어서 좋았어요.

늦은 점심이라 바로 주문! 장어탕 1그릇의 가격은 9000원!! 실속있는 가격이 맘에 들었지만 좀 더 욕심을 내 13,000원 하는 깨장어구이를 시켰답니다. 요즘 어딜가든 장어구이가 비싼편인데 금액이 너무 착해서 제 건강을 위해 픽! 깨장어구이를 시키니 장어탕도 큰 그릇에 한가득 나오고 깨장어구이도 푸짐하게 나왔어

요! 웬지 4000원 더 주고 훨씬 고급음식을 먹는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장어탕은 몸에 좋은 진~한 육수에 정말 건강해 질것만 같은 건강하고 맛있는 맛이였고 밥이 특하게 강황밥이었는데 강황향이 강할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그런건 없었습니다.

추운겨울!! 웬지 몸이 으슬으슬 추워진다면 “여수바다장어”에 가서 따끈하고 진~한 장어탕보와 한그릇 드시러 가세요!

김경숙(해리스가든 대표)

위치: 전남 여수시 미평3길 31
전화번호 : 061-652-1575
영업시간: 오전 11시30분~오후 10시까지
메뉴: 장어탕,장어구이,깨장어구이

한국남동발전(주)여수발전본부, 다문화모국방문 지원금 전달

미평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나종순)에서 한국남동발전(주)여수발전본부(본부장 이동렬)의 ‘다문화모국방문 지원금’ 전달식(28일)이 있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 모국방문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 추천을 받아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한국남동발전(주)여수발전본부로부터 항공료와 소정의 체제비를 지원받아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두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다문화모국방문 지원금은 국적이 베트남인 다문화가정에게 전달하였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베트남 다문

화가정은 “한국에 온 이후에 고국을 다녀온 적이 없었다. 이 기회에 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남동발전(주)여수발전본부 측에 감사의 인사를 표현했다.

한국남동발전(주)여수발전본부 이동렬 본부장은 “지원금을 전달받은 다문화 가정에게 즐겁고 안전한 모국방문을 기원한다며” 마음의 뜻을 전했다.

김영주기자

여수교원교향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 개최

소리에 귀를 열어 맞춰야하는 섬세한 작업,소통하고 행복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 관내 초,중,고 교원으로 구성된 여수교원교향악단이 오는 17일(화) 오후 7시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김용대 교육장은 “연주음악은 서로의 소리에 귀를 열어 듣고 맞춰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단원들끼리 소통하고 행복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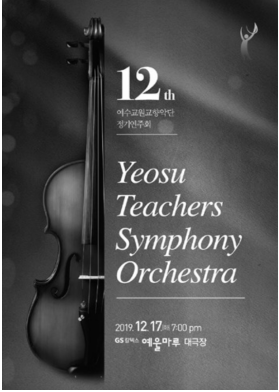
조숙진 운영위원장(관기초 교장)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의 음악적 감성교육을 주도하고 교원으로 구성된 단원의 개인적 건강한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며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이날 공연은 베르디의 나부코 서

곡으로 시작하여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 로빈스의영화 ‘복기’ 주제곡, 카탈로의 무정함 마음, 카푸아의 오 솔레 미오, 라라의 그라나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연주한다.

특히 이날에는 여수시 여도초 교사이자 여수교원교향악단 단원인 조승필 선생이 여운사건의 애환을 그려낸 작곡한 La Grima를 오케스트라로 초연하여 큰 의미를 남긴다.

상임지휘자 손효모씨가 이끄는 이번 공연은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서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조은혜씨와 이태리 Ptsda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로 활동중인 테너 오상택씨가 함께할 예정이다.

김선광 기자

이수진 여성회장..빛의 도시여수,아직도 소외계층많아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의(이하 바르게 여수협의회) 이수진 여성회장은 여수시의회 서완석의 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수진 여성회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바가 컸다.

바르게여수협의회는 최의원 지역민들의 소통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지원사업, 이미용지원 사

업, 사랑해 밥차 등의 사업을 했으며 여수지역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했다.

이수진여성회장은 “여수는 관광객 1700만이 오는 도시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다. 이런 화려한 빛의 도시 여수에는 아직도 소외받는 지역이 있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의는 앞으로도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운동을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수상소감과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최향란기자

'함께하면 더 즐거운여수' 모두모아봉사대



사)모두모아봉사대(회장, 신재성)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대하여 문화공감의 시간을 마련하여 그동안의 봉사활동 영상과 함께 영화 겨울왕국을 관람했다.

사)모두모아봉사대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뿐만 아니라 센터 관계자들도 함께했고 모두모아봉사대 회원들과 가족들도 함께하여 서로 친목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또한 봉사단체의 변화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회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이날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모두모아봉사대는 '함께하면

더 행복한 여수'라는 슬로건으로 2014년에 창립되어 이,미용 봉사와 교통봉사, 빨간밥차 활동, 지역어르신과 함께 나들이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봉사나눔을 하고 있다.

나눔합창단은 소외된 계층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귀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시간을 갖았다.

신재성 회장은 “지난 1년의 활동사진을 보니 회원 한 분 한 분의 봉사활동과 서로간의 협력이 새롭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모두모아봉사대는 소외된 이웃들 곁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최향란기자

가장 저렴하고, 빠른 전속계약 전문

http://www.korea7942.com

건물/토지/주택
분양/임대
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
맞춤형 투자전략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대한

등록번호 제46130-2016-00011호 주소 전남 여수시 여서동 7길 18 TEL 061)681-7477

[농사는 자연이다] <11>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밥이고 보약



하 병 인

이학박사/시민

국립경상대학교농생명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가을이다. 농업에서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여름에 푸르게 자랐던 지상물의 유기물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토양 속 식물 뿌리에서 토양 수분과 양분을 아낌없이 지상부로 올려줌으로써 이파리나 줄기가 공중에서 자랄수 있게 된다.

만약 지하부 뿌리 혼자만 살려고 지상부로 물과 양분을 올려주지 않으면 지상부는 자랄 수 없고, 결국 지상부가 자라지 못함으로써 지하부 뿌리도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지상부 줄기나 잎은 지하부로 부터 공급 받은 물과 양분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다시 단백질을 합성하여 자기의 몸체를 키우고 광합성산물을 지하부로 내려주어 지하부 뿌리가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식물은 보이지 않는 지하부의 도움없이 지상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을의 수확물은 모두 지하부와 지상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먼 산의 나무와 들간의 풀들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상부와 지하부의 자연순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을이면 지상부에 있는 이파리나 줄기가 자연적으로 땅으로 떨어져 내려 지상부 양분을 지하부로 내려준다.

봄에서 가을까지 부지런히 지하부 뿌리에서 양수분을 지상부로 올려 준 댓가로 양수분뿐만 아니라 유기물이라는 이자까지

들뚝 채워서 돌려 받은 셈이다. 또한 지상부로 공급해준 양수분을 액체 상태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나 줄기와 같은 고체 형태인 유기물로 돌려받는다.

그 유기물 속에는 유기성분인 탄화수소, 즉 공기, 태양빛, 물의 구성성분인 탄소 수소 산소 원소가 있고 지하부 토양 광물질로부터 얻은 무기성분인 질소 인산 칼리, 마그네슘, 칼슘, 유황 성분 등이 들어있다.

이런 유기물은 토양 미생물의 밥이 된다. 먹을 것이 많으면 미생물의 인구 밀도도 덩달아 높아진다.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양 미생물도 먹을게 많고 살기 좋은 곳에 모여 산다. 토양 미생물이 많으면 토양 환경이 좋아져서 결국 작물 생육도 좋아지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농경지에는 이런 자연 순환 고리를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가 볏짚을 소 먹이용 사료로 공급하기 위해 논에서 볏짚을 둥근 흰 롤(Roll) 형태로 만들어 수거해 가고 있다.

소를 먹이기 위해 지하부 미생물을 굶기는 형국이다. 토양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

기 그지 없다.

벼의 지하부-지상부의 순환고리가 끊기게 된 셈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논토양 유기물 함량은 1920년대에 4% 대 이었던 것이 지금은 2% 대로 떨어져 절반이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토양 내 유기물의 역할은 무궁무진하여 토양 관리는 유기물 관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밥이고 보약이다.

볏짚은 우리나라 논토양 생태계 보존과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논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주어야 논 의 자연 생태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손쉽다고 해서, 싸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아무 생각없이 무작위로 논토양 밤을 강탈하면 나중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결과는 지상부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온다. 무말할 것 없이 가장 큰 피해는 농민들에게 올 것이다.

소의 배를 불리기 위해 토양 미생물 배를 굶기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가을, 볏짚은 원래 자리인 논으로 다시 되돌아 가야 한다

전남도, 2020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신청하세요

내년 1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와신청서 작성해 제출

전라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원을 5일부터 41일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도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 및 임업자이며, 용자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 유통업체 1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금 중 운영자금은 원료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판매장 임차료 등과 같이 소득 증대에 쓰이는 사업이다.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자금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과수사업에 한해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하는 조건이다.

용자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주소지 관

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업대상자와 지원자금에 대해 서류(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0년 2월말 최종 확정 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유동찬 전남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육성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농가 및 법인에게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는 물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EM 흙공 만들고, 던지기” 연등천 살리기 행사

여수시니어클럽, 환경개선 활성화 위한 생태환경개선 캠페인 행사 진행



여수시니어클럽(김순정 관장)은 미평역 연등천 인근에서 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생태환경개선 캠페인 “EM 흙공 만들고, 던지기”활동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니어클럽 주최로 사업참여 어르신들과 (사)ECO-PLUS21, 둔덕동주민자치센터, 연등천생태계환경개선사업팀 등의 협조로 70여명이 참여했다.

EM 흙공은 하천수질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EM 흙공을 하천에 던져 넣는 행사로 많이 쓰인다.

지난 13일 여수시니어클럽에서

EM흙공 만들기 후 1주일간 건조, 발효 시킨 것을 연등천 일원에 투척했다.

흙공은 EM활성액과 황토흙, 발효촉진제를 반죽해 주먹크기의 공으로 만들어 하얀 곰팡이 균이 피었을 때 하천에 투척하면 수질개선과 토양복원, 악취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수시니어클럽 김순정 관장은 “연등천 살리기를 위한 캠페인으로 ‘EM흙공 던지기 하천 정화활동’을 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다. 내년에는 지역 학생들

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ECO-PLUS21 김영주 회장은 “자연이 한 번 훼손 되면 다시 복귀하기까지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EM흙공 던지기 행사를 통해 자연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걸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EM흙공 던지기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고 있다.

최현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연안정화의 날’..해안가대청소 실시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및 수거문 화정착 등을 위해 해수청을 비롯한 8개단체및 업체 50여명이 해안가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정례적인 해양 정화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대국민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매월 실시되고 있다.

여수신항 북방파제는 해수청, 여수시,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수공항 뒷편 해안가는 여천해양수산사무소, GS칼텍스, LG화학,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봉사를 했다.

POSCO 주변 해안가는 POSCO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및 수거문화정착 등을 위해 정례적인 해안가 대청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정화운동을 통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함께 참여했던 지역 시민은 “우리의 정화활동이 해양 정화활동



으로 계속 이어지고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 정화활동 정례화 방안’ 수립을 위해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백덕례시민기자



여수일보사 호루라기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방법

전화 061-654-8885, 061-810-0011

이메일 ysibtv@hanmail.net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해주세요.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일착 무패까지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을 시민 스스로 호루라기를 불어 환하게 밝히는 통불이 됩시다.

제보자는 신원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보건칼럼



김명숙
전, 돌산병사보건소장

2014년 10월 eAD8-ZEBOV와 nSV-ZEBOV 백신이 자이르에 대한 백신이며 WHO와의 공조하에 임상 시험 단계에 착수했다.

둘 모두 안전한 바이러스 벡터에 에볼라 단백질을 표현시킨 생백신의 일종. eAD8-ZEBOV의 경우 침팬지 에볼라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며 nSV-ZEBOV의 경우 약독화 시킨 VSV 벡터를 이용한다. 이 벡터에 에볼라 유전자 일부를 주입하여 에볼라 단백질을 바이러스 표면에 표현시켜 주입한다.

2018년 1월 6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에볼라 백신의 첫 인체투여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 12월 22일 세계보건기구에서 백신 개발 성공을 선언했다고 한다.

기니에서의 임상실험을 한 에볼라

라 나다 백신(nSV-ZEBOV)이 최종 시험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효과를 보인 첫번째 백신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29일, nSV-ZEBOV 백신을 투여한 5,837명의 임상 실험자들이 모두 살아남아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11월, nSV-ZEBOV 백신은 ERVEBO라는 이름으로 WHO 사전적격성 평가와 EU 조정부 승인을 통과하였다. 2020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신을 출하 및 공급 예정이다.

미국 머크(MSD)의 'ERVEBO(V920)'가 세계 최초로 에볼라(Ebola) 예방백신으로 유럽에서 조정부 승인됐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증도 받았다.

2014년부터 서아프리카에서 퍼진 에볼라는 약 1만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아직까지 예방백신으로 승인된 약물은 없다.

머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자사의 에볼라 백신 ERVEBO(V920)이 18세 이상 성인에게 사용가능한 에볼라 예방백신으로 조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ERVEBO는 자이르형 에볼라(Zaire Ebola) 바이러스에 의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백신이다. 머크는 2019년 3월 유럽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ERVEBO의 신약허가 신청서(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 MAA)를 제출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머크는 독일에서 ERVEBO의 생산을 시작해 2020년 3분기부터 제품을 출하할 예정이다.

WHO는 13일 ERVEBO가 백신 사전적격성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WHO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 백신을 질병위험 국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케네스 프레이저(Kenneth Frazer) 머크 CEO는 "이 백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 백신 사전적격성평가를 진행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백신 사용을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V920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PDUFA(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신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DA는 2018년 V920을 혁신치료제로 지정한 바 있다.

기교문



이광일
전남도의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로서 해안선이 길고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6,743km, 전국의 45%)과 가장 많은 섬(2,165개, 전국의 65%), 가장 큰 갯벌(1,044㎢, 전국의 42%)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수산물 생산량(1,845천톤, 전국의 57%)도 가장 많다.

드넓은 바다와 섬, 갯벌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의 축이다.

하지만 최근 바다는 수산자원의 보고도 되지만 해양 쓰레기의 천국이기도 하다. 바다가 모든 것을 품고 있듯이 육지에서 흘러나온 모든 쓰레기와 해상에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품고 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의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육지기인유입량이 67% 이상 추정되며, 나머지는 폐어구, 선박생활쓰레기, 폐부자 등 해상기인유입량이 33%를 차지한다고

청정한 바다 만들기는 어민이 앞장서서

파악하고 있다. 그 중 쓰레기 발생량의 46%를 수거한다고 해양수산부를 밝히고 있다.

우리 전남은 제1의 수산물 생산 지역이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앞에서 대한민국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지만 우리 전남은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2018년 전남도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연구(2017~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연 평균 해양쓰레기는 26,713톤이 발생하는데 이중 해상기인유입량이 51%, 육지기인유입량이 47%, 육상기인인 2%로 나타나 바다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매우 많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우리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바다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는 어장환경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해산양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을 줄이고 수거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전남은 김 양식, 자망어업이 활발해 페스티로폼과 폐부자재가 가장 많고 중국에서 오는 플라스틱 원형부자도 상당하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불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인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과 청정 바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해양 쓰레기 정화활동, 수거?처리,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선상 집하장 설치, 페스티로폼 감응기 보급사업,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정부나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정부나 전남도보다 어업인의 역할이 가장 크다.

어업인들의 역할을 보면 먼저, 조업 중 그물에 걸린 쓰레기나 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와 적정하게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되가져온 쓰레기는 항 포구 인근에 설치된 선상 집하장에 내 놓으면 어선에서 넘겨주기 쉽고, 육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어업활동 시에는 친환경 어구나 고밀도 부표를 사용하고 폐어구는 정해진 집하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밀도가 낮은 부표는 잘 부서져 쓰레기가 되기 쉽고, 자주 교체해야 되니 비용도 많이 든다. 친환경 인증 부표를 쓰면 오래가서 이익이고, 스티로폼 쓰레기도 줄어드니까 어장 환경에도 좋다.

세 번째로 합성 재질의 그물, 로프는 수 십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서식지를 파괴한다. 특히 버려진 통발은 물고기 무덤이 된다. 일정기간 사용 후 바다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스스로 바다 청소에 참여해야 한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정하여 해양정화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연안 대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어업인의 주도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어업인의 노력만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해양쓰레기는 한 번 바다로 유입되면 빠르게 확산되므로 수거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집계하고 대비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는 것보다 버리지 않고 어업인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며 꿈과 희망의 공간이다. 특히 어업인의 생활의 터전인 바다가 건강하지 않다면 생활을 영위 할 수 없으며 우리 인류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업인 스스로 해양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일 때 생명의 넘치는 바다, 풍요롭고 깨끗한 바다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어업인이 해양쓰레기 줄기와 버리지 않는 활동으로 해양 쓰레기 제로화 추진에 있어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금융칼럼



김충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가 이뤄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범운업을 시작했고, 12월 18일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다.

과거엔 송금을 하려면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업무를 볼 수

‘오픈뱅킹(Open Banking)시대’

있었다. 수수료 또한 금액에 차등이 있었지만, 적게는 500원에서 몇 천원씩 하곤 했다. 오래전 은행창구의 모습이다.

지금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어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계좌조회, 이체 등을 할 수 있다. 대면거래에서 점차 비대면거래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주거래은행의 어플 하나로 다른은행의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다.

현재는 10개의 시중은행에서 시범운업을 하고 있지만, 12월 중순 이후 시범 기간이 종료되면 시중 모든 은행과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토스(Toss)나 카카오뱅크 등의 핀테크업체들도 동참한다고 한다.

2020년 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왜 이제야 시행하나?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다.

오픈뱅킹 활성화로 인해 금

용소비자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어플 이용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는 거래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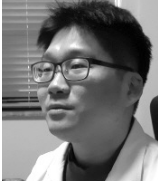
수수료가 기존 500원에서 20~5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은행간의 경쟁을 통해 금융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모든 은행 정보를 하나의 어플에 모아 두었으니 하나의 어플만 해킹을 하면 해당고객의 모든 금융정보들을 한꺼번에 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본인의 단말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 또한 24시간 고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의료칼럼



이준형 원장

허리, 무릎, 어깨 전문(자연한의원)

타박상은 주로 외부의 충격을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피부에 별다른 상처는 없으며 좌상이라고도 한다. 원인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

타박상(Contusion)

거나 넘어지고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 교통사고나 운동 중 부상, 수술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혈액이 세포 조직 속으로 퍼지면서 멍이 들거나 붓게 된다.

혈소판 기능에 이상이 있어 혈소판 응집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혈관벽(Vascular Ring) 등의 질병 원인이 될 수 있다. 증상은 외상 부위가 멍들거나 붓는다.

피부색이 보라색이나 청색으로 변하고 부어오른다. 원인에 따라 증상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통증이 있다.

혈액의 유출 정도에 따라 멍의 크기나 붓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외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근육, 뼈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외상 부위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치료법은 가벼운 타박상은 휴식, 얼음찜질, 압박, 외상 부위를 올려 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고, 회복기에는 스트레칭을 한다. 외상 부위에 바로 얼음찜질을 하면 부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류를 감소시켜

내출혈을 막을 수 있다.

휴식은 2차적인 부상을 막아 회복 시간을 줄여준다. 외상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열과 혈류를 공급함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타박상이 심한 경우에는 최소 3일 이내에 전문적인 방법으로 내부 출혈을 줄여야 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상처 부위의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처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여야 한다.

예방법은 대개 외상이 원인이므로 외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엔 행동습관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책임시공



철저한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경제적인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공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주기업

대표 김성은

건설자재임대

비계설치공사

Tel. 691-7890, 682-7890

H-P. 010-3644-5859 Fax. 691-7896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기난과 신체적 곁핍, 숙명적 과제를 풀기 위한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

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 신병은(시인)

손상기의 그림에 보이는 시적 사유...(2편)



한 예술가를 조평함에 있어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예술정신과 작품을 떠나 예술가의 운명에 의해 객관적 평가를 흐리게 하는 경우이다.

화가 손상기도 같은 경우이다. 분명한 것은 요절할 때까지 예술에 대한 치열성과 작품에 반영된 그의 예술혼이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것이 죽어서도 우리를 그의 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에게서 그림이 곧 삶이고 삶이 곧 그림이었다.

그가 메모한 독백과 회상에서 그림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두고 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상체가 난 나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욕망에서이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의 상실,

이로 말미암은 암흑 속에서 고독과 오해를 느끼며,

아픔에 심음하는 언어를 추려내어 가혹하고 엄격한 훈련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안 될 필연적인 나의 모습이고

상실이 빛은 어둠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며

이런 것에서 헤어나기 위해 고통지르는데

이런 나의 작업은 곧 하루의 삶을 누린

일기처럼 진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며,

이 진실의 강한 밀착만이 나를 호흡하게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그려져야 예술이라고 알고 있다

그가 첫째인진 초대의 글에서 밝힌 그림과 삶에 대한 관점이다.

그가 얼마만큼 고통 속에서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육체적 곁핍 때문에 잃어버린 꿈들을 되찾기 위한 그의 작업. 안으로 감추어진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과 의식의 흐름을 예리한 칼로 가슴을 활짝는 듯 섬뜩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하고 활동적이고 무엇에 관련되는 것이다. 예술은 우리들의 의식상태를 확장하고 심화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를 증대시킨다. 예술은 삶의 경험을 발견하고 고조시키고 순화시킨다

역사의식이 우선이나 미의식이 우선이나, 하지만 한 시대를 사는 인간으로서 충실한 작가가 자기자신의 마음에 찰 작품을 진지하고 정작하게 제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역사와 분리되고 미와 구분되겠는가?

눈, 이, 호른, 배, 변비, 다리, 신경통, 가슴, 등, 키, 아프지않은 사랑이제일 부럽다. 명성의 바위처럼 위용있게 돌출된 가슴뼈, 외풍낙타처럼 생긴 등, 53에도 못 미치는데 키, 불쌍다. 기했다. 그가

-작업일지에서-

그에게서 작업이 얼마만큼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독백이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다는 사실은 가난과 신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라기 보다는 그의 모든 삶이 한데 응어리진데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승화된 예술정신의 발현이었다.

그것은 이론을 앞세운 명목가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삶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끝이 없는 자기 물음에서 비롯된 경험 그 자체였다.

아픔을 아픔으로 감싸 안기 위한 몸부림,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행복이었기에, 고통마저도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예술가 고유의 의식은 강요된 또한 단순히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 너머에서 자연의 통찰, 현실의 소유, 그리고 현실의 풍요화와 인간적인 것의 확신을 지향한다. 진정한 예술가는 항상 이미 정설되어 있는 일체의 편견을 뒤엎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생각하는 바를 표명한다

그는 이러한 고지식한 고집을 배경으로 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그림 세계를 이루어낸다.

자신이 어릴 때 꿈이 머물게 된 아픈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한편으로 음산하고 음씨년스런 음울한 도시 풍경을 선보인다.

죽지 않을 꽃과 『공작도시』연작들이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보이는 회색톤의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 거친 나이프의 흔적, 메마른 꽃이 꽃혀져 있는 화병, 활뿜은 도시의 울지던 스런 풍경, 어둡고 위험한 길, 담장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억제된 무의식, 세상을 향한 검고 짓푸른 경멸감, 한없이 탄허있는 그 무엇들이 호흡 가쁜 숨소리로 속도감 있게 달려든다.

불안과 공포 같은 음울한 공간 속에서도 가슴 뜨겁게 타오르는 예술혼이 보는 사람의 가슴까지도 데일 것만 같아 덩달아 절규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술은 문화형태 중의 하나로서 살아가

는 의식과 행동의 가치지향에 불과하다. 그림에도 미술자체에 어떤 특수하고 고정적인 본질을 부여하고 이를 둘러싼 전문적 기능주의에 매달릴 때 쫓는 나는 죽어있다고 본다. 삶은 진실하게 담아내는 과정의 형식으로서 삶과 삶 사이의 공통적 소통을 이루지 못할 때 그 미술은 기능적으로 분명 죽어 있다

심한 곁핍의 시절을 그림으로 살아오면서 얻은 화관을 이려하다.

총체적인 의미로 문화 속의 미술은 살아가는 의식과 행동의 가치지향에 불과하다... 그림에도 미술자체에 어떤 특이하고 관념적인 본질을 요구하고 이것을 유지한 전문적인 기능주의에 근거할 때 효력이 없음을 느낀다.

삶을 진실하게 표현해 보이는 과정의 형식으로서, 삶과 삶 사이의 연결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은 기능적으로도 살아있는 생명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다. 단지 재료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미술은 삶의 총체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게 하는 기능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림은 작가의 경험, 체험의 소산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항상 내가 포함되어 있는 현실 인식으로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자신의 문제에 급급했는데, 이제 현실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직시하게 되었다.

그들과 더불어 부대끼면서 사는 삶. 거대하고 메마른 도시에 서정을 심는 삶이면 된다. 그리고 가끔 스스로에게 충고, 격려하는 길 잊지 않는다

그의 『자라지 않는 나무』에서 보이는 자신만의 문제에만 국한된 세계에서 드디어 현실이라는 것, 보편적인 사회적 삶의 문제에 시선이 옮겨간다.

메마른 도시의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내기 위한 작업.

공작도시,연작은 산업화 기계화가 빚어낸 인위적이고 기계화된 삶의 허상이다.

비판적 시각에서의 현실인식, 이는 늘 번두리를 살아온 그의 자전적 체험이다.

그의 작품이 화단의 관심사로 주목받기 시작한 80년대 당시,

우리 미술계가 사회현실 속에 몸을 던지던 그때도 그는 조용한 가운데 외롭게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을 보듬어 내는 내면적 응시로 작업에 임한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미술사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 유행되는 조류나 유과는 아무 것도 모른다(의식하지 않는다)

감동 얻지 못하는 주제 소재는 하지 않을,

늘 친근하게 대하고 불쌍사나운 것에 애정을 느낀다

다만 모순된 작업을 통해 한 사물에의 집요한 관심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이되는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예술가의 사명이다 예술은 삶의 경험을 발견하고 고조시키고 순화시킨다

현실에서의 발견이 가장 정직한 예술혼이자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죽을 만큼 확실한 것 없다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직도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성급함이 작품의 분위기 속에 그대로 반영된다.

현실에 대한 직선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만의 현장감과 속도감을 표현한다. 그의 작업은 어떤 형식이나 방법에 따르지 않는다.

‘나는 지난날의 작업태도나 내용을 잊어버리고 늘 일렁이는 가슴속에 또 다른 것을 위해 철저한 자유 속에서 매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작업 속에서 어떤 작품이나 내반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삶에 투영된 현실과 운명, 뒤틀리고 형용어진 삶의 비정한 풍경을 우울한 회색의 빛으로 정작하게 그려낸다.

시장의 행상 아줌마, 수레를 끄는 말뺨 아꾼, 어부의 가족 풍경, 어부의 아내, 밤늦도록 철문을 내린 가게 앞에서 좌판을 벌려놓은 여인네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유달리 피부가 까만 환자, 울음비친 어린시절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사실적이지 않고 뒤틀리고 불분명한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자기 밖의 세계를 자기 안에 중심화 한데서 가능했던 자기만의 세계이며, 한정된 운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집념의 결과가 아닐까, 괴롭고 거친 삶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긴장감이 있고 고독한 삶에 스스로 위안하기도 하는듯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창출해 낸다.

대상의 자기 동일화(Identify)이다.

자기연민과 소외, 그리고 고독과 단절에 대한 자기위안이라는 복합적인 심리가 이 탈하지 않는 그곳에 늘 자신을 가두어 두면서 그 가슴 속에 삶의 자유를 획득해가는 현실주의를 지향한다.

높다란 탑의 표정, 그 표정에 나는 무슨 할말이 있어야 한다

그 할 말을 그리자

어지럽게 덧칠하는 붓자국과 거칠고 날카로운 나이프의 흔적은 내면적 상흔의 심리적 발현이며, 누군가 대변해 줘야 할 이웃에 대한 배려이자 고백이다.

소외된 변두리 인생일망정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의 경건함과 물질화된 도시공간의 비정과 어두움을 응시한 것이며, 자기 자신과 냉정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선을 획득했다.

『처참한 생존의 다름, 전율과 공포의 신음소리가 정확한 객관묘사의 냉정함보다도 사물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함으로써 전체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시

적 언어를 구사한다』 원동석교수의 그의 『공작도시』연작에 대한 평이다.

그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아현동의 회색빛 돌계단과 외롭고 쓸쓸한 뒷골목 풍경을 통해 세계와의 단절을, 손수레를 끄는 행상인의 외침을 통해 소외에 대한 내면적 절규를, 산길 동네의 무언지의 황량함을 통해 내면의 어둠과 침묵을, 이른 봄날 고층빌딩 옥상에선 할머니의 뒷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그의 과거를, 도심 속의 고독한 모이를 쪼는 자신의 모습을 명동의 비둘기로 재현하고 있으며, 난지도의 판자집 앞에 웅크린 사람들과 그 너머로 보이는 교회의 풍경, 고층 빌딩의 대비적 묘사를 통해 인간에게 희망은 무엇인지를, 산동네가 건너다 보이는 골목어귀 기대어진 아낙네의 웅크린 모습에서 삶의 기다림은 또 무엇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내적 독백은 모순투성이의 인간의 삶에 대한 부정이며 항거이다.

인간의 외로운 모습, 길들이 상하좌우로 교차하는 음양 속에 파묻힌 먼 동네의 모습은 대부분의 우리 인간이 간혀 사는 삶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었다.

부르짖을 수 없는 나의 음성은 노래가 되지 못한다

그때 잡기잡의 한 줄 글로만 적혀진다.

그의 화면에 살아나는 풍경이나 인물은 그들 자체의 현실적인 존재를 말하기 위한 한 측면에 대한 클로즈업이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를 밝혀내고 보이지 않는 모순을 들춰내어 보이며, 회복되어야 할 무엇에 대한 강한 역설이다.

인간의 비정함, 소외되고 찢겨진 삶에 대한 조형화는 인간회복을 갈구하는 그의 파열된 절규이다.

그의 그림에서는 자화상 이외에 구체적인 인물화가 없음도 이러한 그의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화면 속의 인물은 한결같이 얼굴이 지워진 그림자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은 자기 외는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기 연민과 소외의 심적 표현이 분명하다. 이는 자기 삶의 심리적 분출이며 고독하고 아픈 영혼을 표현하려는 몸부림이다.

이처럼 그가 그려낸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보편적 삶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마치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터널 속에서 그는 한을 소리 없이 잉태하고 있다 회색빛으로 한의 무게와 깊이를 더하며, 그러면서도 속도감 있는 화면 처리는 삶에 대한 차가운 미학적 거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응고시켰다. 인고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실존적인 빛인 외로운 사람의 뒷모습 너머 멀리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는 원근법을 통해 그가 얼마큼 개성을 통해 모방과 타협이 아닌 독자적 예술세계를 구축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배어낼 수 없는 것, 깊이 들이킬 수 없는 것, 지울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어린 날의 나는 늘 서글픈 눈이 되어있었다

집 앞 배나무에서 첫 새벽부터 울던 그 예뻐던 새

그는 결국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되찾지 못한 채 영원히 떠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예술가로서의 삶과 흔적은 그가 살아생전의 자화상이었던 “자라지 않는 나무”로 지금도 한국 화단에서 신나게 자라고 있다. 그는 아픈 질곡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아픔과 운명을 시적 사유로 응시함으로써 그의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는 땅 깊은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노래를 들어야 한다는
투정 넣어도
희열건 달이 얼굴을 내민다
어둠을 쫓아내고
고통을 얻지는
성자가 되어 온다

영육을 물어오는
아이의 성숙 앞으로
아빠하는 표정되어 파어나
망자의 침에
진실을 물려 꽃는다

해져진 못갠 사이로
빈궁의 공기 스미어
갈망의 때가 끼인다
타오르는 분노가 입히는
악마의 혀(□□)를 찢어내는
수도사 되어간다

황령한 그의 표정에
고통의 그늘 지우는데도 있어
따닥 오는 호흡길로
열력의 행차□□여
달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달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는 지금 그가 살아 생전 그렇게 꿈꾸어 왔던 자유 속에서 벗고 싶었던 곁대를 벗어 던지고, 외치고 싶었던 생의 찬가를 부르며, 태우고 싶었던 예술혼을 만졌 태우면서 ‘행복한 달의 미소’로 웃고 있을지 모른다.

여수 미남크루즈

국내 최대규모 연안 크루즈

여수미남크루즈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the Yeosu Minam cruise ship.

지회 여수미남크루즈는 2009년 국내조선기술로 건조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크루즈입니다.최첨단 안전 및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승무원들의 인명구조 및 비상대응 등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승무원들로 관항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약속합니다.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남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미남크루즈 운행 내경안내

그동안 엑스포장에서 투정기여객선으로 운행했다가 **돌산대교 선착장에서** 유람선면허를 받아 **운행**.

- 11시30분, 14시30분, 18시30분 출항.
- 여객운행 매일 운행하며 불꽃놀이하는 금,토,일 주3회 행사.
- 1시간 30분 코스.

예약 및 단체문의

061) 644-6255

롯데첨단소재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체험학습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 고객모니터위원 제주도 2박3일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관장 천중근) 고객모니터위원들은 지난 6일 롯데첨단소재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체험학습을 2박3일 다녀왔다.

롯데첨단소재의 후원으로 제주도 의 아름다운 해안길 산책, 유람선 승선, 절물 자연휴양림 탐방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체험하며 여수 지역의 생태환경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함께 참여한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 조찬준 고객모니터

위원은 "사고 후 32년 만에 다시 온 제주도는 감동과 감격이었다"면서 제주도 여행의 소감을 밝혔으며, "언제 또 다시 제주도를 와 볼까? 이번 추억을 일기장에 길이 보존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롯데첨단소재 류한주 사회공헌 사무국장은 "롯데첨단소재와 함께하는 제주도 생태환경 체험학습이라는 타이틀처럼 2박3일 복지관의 고객모니터위원님들과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함께라는 의미가 더

와 닿았다. 장애인분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롯데첨단소재 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여하는 동안 더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천중근 관장은 "이번 생태환경 체험학습을 함께하면서 장애인의 불편함에 대해 더욱 많은 생각을 했다. 여수 봉화산 무장애숲처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생태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김수동 시민기자



유동명 화가의 ‘모던하고 섬세한’ 세계

유동명 화가의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

유동명 화가의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작가는 한일미술교류전(오키나와)을 비롯하여 kbc갤러리 동행전, 대한민국 남부국제현대미술제 등 다수의 전시회를 통해 작가의 세계를 독자와 함께했다.

작가의 영감은 자연으로부터 온다.

바다, 꽃, 나무, 잎을 주제로 한 모던하고 섬세한 해석의 작품이 궁극의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자연의 형태와 감상은 그 만의 독특한 패턴과 색, 질감으로 추상화 되고 다채롭고 화려한 패턴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질서는 화폭에

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완벽한 독자적 세계를 완성한다.

입체적이고 보석처럼 빛나는 마티에르는 유동명 작가를 국내의 독보적인 존재로 발돋움하게 해주었다.

그의 작품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이외에도 그 내용과 가치로 인해 관심을 끌게 된다.

여수의 이미지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섬유로 롤러주 한 작업이 작품마다 변화무쌍한 패턴으로 선보여지고 몹시 다양하고 화려한 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유동명 작가와 함께 작품과 호흡하는 공간이 되기를.... (- 메레트



더 갤러리 김대중 대표)

차기철시민기자

행복한 연극 “할매국수” 공연

여수연극협회 38주년 기념 공연, 진남문예회관
힘들지만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작품

겨울의 시작이자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사)한국연극협회 여수지부(지부장 양은순)는 오는 12월 14일 ~ 15일 양일간 진남문예회관에서 여수연극협회 38주년 기념공연 작품 여수를 배경으로 ‘할매국수’ (작가 김종진 / 연출 양은순) 공연을 준비했다.

줄거리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시장 통에서 국수 장사를 하는 할매 국수 가게는 방송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성공한 가게다.

인터뷰를 통해서 젊은 시절 본인이 겪은 파란만장한 과거를 회상한다.

현재 어느 날 의지하며 살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할머니 곁을 떠나게 되고 모든 걸 내려놓으려는 할머니에게 과거 젊은 시절 사업실패로 부랑자가 되어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내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베풀으로써 큰 깨우침을 받고 훗날 성공한 사업가가 된 사내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위로한다.

할매 국수는 현재와 과거의 할머니 삶을 통해서 힘들지만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작품이다.

할매국수 배우로는 남병환, 김태인, 정태균, 김영애, 박영식, 주선희, 오미라, 김두현, 배중수, 두진성, 김중희, 임주영, 정은희, 황지경, 홍화연, 박난정, 양다원, 정수



진, 강희준, 이진호, 방민영, 강동주, 이가영, 김재석, 김나운 아역배우부터 원로배우까지 25명이 참여한다.

스텝은 작가/김종진, 연출/양은순, 기획/유희민, 음악작곡/이동진, 음악감독/김민정, 예술감독/김영중, 영상디자인/채명석, 음향오프/김정봉, 조명감독/김종오, 무대감독/정재현, 무대디자인/김형술, 무대미술/정재만, 분장디자인/박수정, 분장/원하니, 의상디자인/박다은, 의상/선봉숙, 소품디자인/김미숙, 소품/박혜빈, 기술감독/심순석, 진행/이종근, 진행/김현준, 진행/손경남, 진행/이영훈, 진행/정주호, 진행/권하린, 진행/김효연 27명이다.

유희민시민기자

남도의 단풍을 찾아, 두륜산으로 떠나는 힐링나들이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관장 천중근)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250여명과 함께 해남 두륜산으로 단풍여행을 다녀왔다.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 담당자

는 이날 힐링나들이는 전국 관광명소를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및 직원들이 중증장애인과 1:1로 연결하여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천중근 관장은 “가을 산을 곁게 물들인 오색 단풍의 계절에 힐링나들이를 통해 복지관 이용자들이 소풍가는 아이들처럼 밝은 마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재선(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숨은 명소 가사리 생태공원 갈대숲 탐방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여수 숨은 명소

지난 10일 여수일보 학생기자단은 여수의 숨은 명소를 알리기 위해 가사리 관기길323에 위치하고 있는 가사리 생태공원을 탐방하였다.

여수 시청에서 자가용으로 출발하면 약 10분 정도의 거리인 가사리 생태공원 속 갈대숲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 평화롭게 걷기 좋은 가을명소로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여수의 숨은 명소다.

가사리 생태공원의 갈대숲에서는 높게 들어서 있는 갈대들 가을을 알리고 입구의 전망대에서는 갈대숲을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갈대길 근처에는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어 조용한 자연 속에서 기분 좋은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근처의 길을 드라이브하는 것 또한 풍경을 감상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탐방중인 시민은 “갈대숲 뽕뽕에서는 여러 생물의 소리가 들려온다. 새소리, 곤충 소리 등이 절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힐링하기



에 딱 알맞은 장소다”라고 말했다. 가사리 갈대숲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 길에서 보면 갈대숲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구에 크게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다.

또한 가사리 생태공원을 소개하

는 정보가 없었다. 이곳 뽕뽕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어떤 철새가 날아오는지 등등 안내판이 있으면 좋겠다.

데크로드를 걸으면서 이곳을 날아오는 철새와 살고 있는 생물, 사진찍기 좋은 장소 등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것이 학생기자단의 생각이다.

조여원 학생기자(웅천중1년), 사진 강성은학생기자(웅천중1년)

용주 할머니 장터로 오세요~

가을에 알맞은 호박,양배추,생강,마늘,알타리무 등

화양면 용주리에는 정성껏 가꾸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용주 할머니 장터가 있다.

용주 할머니 장터는 소재마을에서 용주리로 진입하는 도로의 커브 길에 위치한 초목색 천막이 있는 작은 장터이다.

이곳에서는 가을에 알맞은 호박, 양배추, 생강, 마늘, 알타리무 등 여러 농산물을 볼 수 있다.용주 할머니 장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먹거리라는 점이고 시종보다 저렴하면서도 싱싱한 농작물이라는 점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점에 많이 찾고 있다고 했다.

장사를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여름철에 인기 있는 옥수수가 팔아서 손님이 조금 줄었다.하지만 고구마랑 양배추가 꾸준히 많이 팔린다. 화양면은 땅이 좋아서 고구마가 참 맛있다”라고 했다.

화양면에서는 우리 고장의 농산



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화양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용주 할머니 장터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다양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니 다음에는 꼭꼭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과 친구와 우리고장의 가을 나들이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는 ‘용주 할머니 장터’ 적극 추천합니다 ~~~

강성은 학생기자 (웅천중 1년)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 ‘현천 소동패 놀이’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7호

노동의 고달픔 노래, 춤, 농악으로 잇어



현천 소동패 놀이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라면 현천리에서 소동패를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노동과 관련, 노래와 춤을 혼합하여 하는 민속 종합 예술이다. 현천 소동패 놀이는 1982년 인천에서 열린 제 22회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한 바 있다.

소동패란 16세부터 19세까지의 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조직의 규약을 철저히 지키며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품매기, 김매기 등 공동 노동을 하였다. 소동패 놀이는 일의 능률을 높이고 노동의 고달픔과 지루함을 잊기 위해 농악, 노래, 춤, 놀이 등을 생활화한 것에서 그들이 염원을 찾을 수 있다. 소동패 놀이 첫째 마당은 동구마당에 모여 영수,영문을 잡고 공원의 지시에 따라 소고수가 ‘모임소고’를 올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동들이 영문 앞에 줄을 맞춰서 공원으로부터 인원 점검과 그날 작업지시를 받고 길소고를 치면서 들로 나간다.

둘째 마당은 들로 나간 소동패가 두렁에 영기를 쫓고 김을 매는데, 초벌 논매기, 두벌 논매기, 세벌 논매기를 한다.

셋째 마당은 이웃 오룡마을 소동패로부터 시비 전갈이 오면 두 마을 소동패가 기세를 올려 영문을 잡는다. 오룡마을 소동패로부터 “복포 은갑은 상사로 조련하고 기치잡기는 일월을 회룡하고 영은 군중지영이요, 문은 장군지문이라. 이문을 치워주시면 우리 소동 공좌승 되시고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영문 전갈을 받는다.

넷째 마당은 전갈 의식이 끝나면 양면 소동패가 하나가 되어 풍물을 치면서 어울림굿(유산굿·소고놀이·자진유산굿·구정놀이 등)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이 놀이에서 하는 것들은 농악, 노래, 씨름, 줄다리기, 영기달리기, 장치기 등이다.

지난 1일 여수시 현천 소동패 놀이 보존회가 이순신 광장에서 흥겨운 한마당 공연(1일)을 펼쳤다.

최정철 소라면장은 “현천 소동패 놀이 보존회가 회원들이 고품이어서 원천 보존과 전승 단결에 우리가 있다”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리 학생기자 (여수 웅천중 1년)

“여수 어린이들과 만남의 시간”

권오봉 시장님!만들어주세요~

권오봉 시장님께서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희망인 ‘여수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8일에 여수시청에 있는 문화회에서 시민공감 이야기마당을 하여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한다. 이번 이야기마당에서 시장님은 여수가 시민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것들과 앞으로 활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도 만나주시면 좋겠다. 시장님을 만난다면 나는 관기조등학교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가 다니는 관기조등학교에는 배드민턴팀이 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대회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하여 상을 받을 때도 있다.

시장님께서 대회 때 오셔서 함께



배드민턴도 치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놀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시상식도 해주시면 더 기쁠 것 같다.

그리고 시장님께 특별 부탁이 있다. 우리 삼촌이 공무원인데 일이 너무 많아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삼촌 생일인데도 늦게까지 일해서 가족들과 함께 생일파티도 못해서 조금 불쌍했다. “시장님~ 저희 삼촌 근무 시간 좀 줄여주세요~ 머리카락도 빠지니까 불쌍해요~”

김성현어린이기자(관기조5년)

편지글 - 다문화친구 임희은에게

안녕? 나는 희은이 네가 우리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봤어. 네가 살았던 베트남과는 많이 다르겠지?

나는 베트남 음식도 궁금하고 그 나라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지도 궁금해.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갔을 때 너희 엄마가 해주셨던 쌀국수는 참 맛있었어. 우리나라 국수보다 면이 얇았는데 더 맛있었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자주 나오고 우리들과 활동도 같이 하자. 친구야~ 우리나라에 온 너를 환영한다!!!



2019년 11월 친구 황에서



‘클린 코리아’ 캠페인 아름다운 여수가꾸기 시민운동 캠페인

중앙동실천위원회가 ‘클린 코리아 캠페인’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 캠페인인 청결활동을 중앙동 일원에서 했다.

중앙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자생단체회원들이 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벌처럼 반짝반짝이는 눈빛을 빛내며 태양빛 햇살아래 중앙동 일원

을 누볐다. 이순신광장 입구에서 모여 구역별로 이동하여 주요관광지 및 공원 그리고 거리를 누비며 쓰레기 수거와 시설물 정비도 하였다.

‘깨끗하고 맑은 마음은 깨끗한 거리와 맑은 바다에서 나온다’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 홍보 및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서 하였

다. 여수 시민의 자긍심을 갖자는 피켓을 내세워 국제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 아름다운 여수 우리가 만들어 가자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손을 내세워 클린하게 청소하였다.

길에는 본래 주인이 없어서 그위를 걸어가는 자가 주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주인이 되어 걸었다.

우리 모두 주인이 되어 불개요! 최정규시민기자

‘꿈꾸는 섬’ 여수섬복지...우리나라 최초 섬복지지원센터 구축을 희망한다



초대석

임채욱

(사)여수시민복지포럼 이사장



여수시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밑그림 작업이 한창이다.

2026년까지 여수~고흥 간 11개 연륙, 연도교를 완공하여 세계적인 교량박람관을 선보이고 여수의 365개 섬을 알리기 위한 행정이 활발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인 섬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임채욱 이사장 (사)여수시민복지포럼을 자봉도 제도 섬복지 봉사현장에서 만났다. 이회 내용은 임채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섬복지가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가?

민선7기 권오봉시장의 선거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여수시에서도 섬복지가 시작되었다.

시에산으로 8천만원이 책정되어 민간과 공공영역을 총괄하여 4월부터 여수섬을 찾아 다니고 있다.

매달 화정면, 남면, 삼산면의 100명 이하의 섬들을 30회 이상 방문했다.

섬주민들을 위하여 이바용서비스, 밀반찬서비스, 대체의학서비스, 집수리,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종합복지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노력이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국비 5천만원이 여수섬복지에 추가된다.

▶2016년부터 민간단체를 만들어 재능기부여수섬복지 활동을 시작했다.

(사)여수시민복지포럼을 만들어 재능기부봉사자들과 함께 섬현장을 다녔다. 정기적인 섬복지 활동을 순수 회비로 하고 있다. 바쁘신 분들은 회비를 내주셨고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은 재능기부를 해주신다.



섬어르신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정성에 크게 감사해주신다. 봉사자들은 그 감사함에 오히려 힐링을 받고 스스로 자존감을 느낀다. 덕분에 기존 봉사자들이 만족하고

다른 봉사자들을 인도해 온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섬복지의 중요성이 인정받아 8월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 과거는 섬복지가 관 주도로 운영됐었

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수섬복지는 이미 우리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었기에 빠른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고 전남복지재단에서 선정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대상을 받는 등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섬복지를 시작하게 된동기는 무엇인가
여수의 지리적 여건 상 복지사각지대는 섬이다. 그래서 2007년 여수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었을 때 지역 복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여수섬복지를 한국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11년까지 실시하여 뜨거운 호응과 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를 하였다.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많은 상들을 수상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중단되고 여수시가 자체 수행했으나 약화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2016년부터 내가 다시 섬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섬 현장을 답사하고 방문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자원인 봉사자와 자원을 연계하여 섬복지활동을 시작하였다. 내년은 우리 법인에 외부 섬복지 지원을 6천만 원 확보하게 되었다.

▶회비로만 운영되었으니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과의 자원연계가 필요했는 것 같다.

여수는 섬이 보배고 미래의 자원의 보고다.

또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원연계활동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매개체가 섬복지활동이다.

2011년 중단되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넘는다. 한 번 참여봉사자나 재능기부자의 만족도가 높아 그 전파력이 여수시민들을 상대로 큰 동심원을 그려나가고 있다.

섬복지의 목적은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이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체계화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자에 들어와 섬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반갑다.

▶섬복지, 가장 어려운 점이무엇인가?

여수 섬 지역은 6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되어있다.

섬지역 노인들을 위한 생활실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같은 연령의 노인이라고 해도 섬지역은 복지서비스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행복한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섬복지는 필수다. 섬지역의 교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오늘 자봉도와 제도를 봉사하기 위해 모인 봉사자가 35명이다. 한꺼번에 다 탈수가 없으니 이장님께서 배로 왕복 8번 운행을 해주신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섬 복지구축이 확보되어야 한다.

관광, 문화, 산업, 복지의 총체적 융합 활동으로 자원개발 및 각 재단과의 협약 체결이 있어야 한다.

▶여수섬복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30만 소도시에서 국제행사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힘은 여수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도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여수시자원봉사시민대학을 운영하여 5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육하였고 행사 기간 98일 동안 현장에서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했다.

모든 시민들이 동참하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여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신을 이어서 후대에 물려 줄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9국제섬포럼 in yeosu'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다.

여수는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지고 있다. 여수섬복지를 완성하여 우리나라에서 섬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에 전파하고 전국 최초의 섬복지지원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여수섬복지가 민간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함께하는 봉사마당이 되길 바란다.

최향란기자



범용테크

Plant Equipment Sales & Service
Solvent & Chemical Sales

주요 취급제품 & 협력사

가스검지기, 수신부

가스검지기

스팀트랩, 응축수 회수

spirax sarco

기계가공품, Mesh 등

(주)물엿기계

제품문의 061-644-2330 / Fax 061-644-2320



본사 / 대표이사 : 김 범 수
전남 여수시 여수신단로 284
Tel. 061-691-8515 / Fax. 061-644-2320

대길CP ABS 및 EP Compound 가공
롯데첨단소재 공판내 / 207명

대길MF SSBR 및 EPDM 포장, 출하
롯데에너지솔루션 공판내 / 37명



Gas Detector



Steam Trap



Mesh & Flexible Hose & Strainer



우동식의 <詩 읽어 주는 남자>

해빙

두 귀를 곧추세운
눈덮인 마이산은 적막이다
귀 속 가득 눈 차올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터
어느 날은 귀 뒤편에서 달이 뜨는 날
도 있고
어느 날은 귀 앞쪽에서 태양이 떠올라
해종일 귀속을 지피지만
아프도록 눈은 녹지 않았다
바람도 딱 갈나무 가지에 얼어있었다



이생용

멀리 이어도에서
훈풍주의 보가 타전되던 날
죽지 않은 눈 위에
복수초가 노란 눈망울을 터뜨렸다
두 귀가 펴 풀렸다

/ 詩詩한 이야기 /



우동식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의 풍경이다. 말의 귀와 같다 하여 마이산(馬耳山)이다. 화자는 눈 내린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거대한 두 암석에도 은수사, 금당사 사찰에도 기슭의 탑사에도 눈으로 덮였다. 소복소복 쌓인 눈과 나무에 얼어붙은 상고대는 설국(雪國)이다. 이 신비스러운 나라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 소리 하나 없는 그야말로 적막강산(寂曠江山)이다. 살을 여미 듯 한 차가움이 정신을 오싹하게 하지만 귀는 풍조하게 세우고 있다.

신라 경문왕은 임금 자리에 오른 뒤 나귀의 귀처럼 켜졌다고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설화는 아마도 임금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저 눈의 나라 임금님은 두 귀를 가지 국처럼 세우고 세상 모든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겨울 마이산은 귀를 곧추 세웠으나 귀 속까지 눈이 가득하고 풍풍 얼어붙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저 커다란 귀로 세미한 소리까지 듣고자 하나 들리지 않으니 들을 수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적막을 넘어 절망이다. 달이 뜨고 해가 솟아 해 종일 귀속을 지피지만 아프도록 눈은 녹지 않는다.

저렇게 크게 우뚝 솟고 견고하지만 바위를 마주한 것 같은 귀를 보면서 시적인 화자와 우리는 열린 귀 뚫린 귀를 간절히 염원하게 된다.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했고 체게바라는 혁명의 전장에서 고전과 선포

의 시를 읽고 배웠다. 그의 배낭 속에서는 항상 괴테, 보들레르, 토스토예프스키, 네루다, 마르크스, 프로이트, 레닌 등의 책들이 떠나질 않았다고 한다.

전장에서 전사한 그의 유품에는 지도와 두 권의 일기 공책 한 권이 있었는데 네루다 등 4명의 시 60편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귀를 순하게 만들게 위해 서다. 귀를 예민하게 위해서다. 귀가 밝아야 행동이 밝다.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행동이 통하는 통, 통, 통(通,通,通)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통섭(統攝)으로부터 시작 된다.

눈을 뚫고 겨울을 뚫고 봄의 전령사로 피는 복수초는 북과 장수를 가져오는 희망과 행복의 꽃인 것처럼 귀가 열리는 것 쟁 뚫리는 것 그제 곧 해빙(解氷)이다.

여아관계, 남부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관계가 풍풍 얼어붙는 것은 귀를 닫는다는 것이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서로서로 귀를 열어놓고 잘 들어야겠다. 멀리 이어도에서부터 훈풍주의 보가 타전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두 귀를 안테나처럼 풍조 세우고 수신되는 전파를 잘 감지해야겠다.

마이산이 두 귀를 탈 털고 있다. 쌓인 눈 속을 헤집고 달려 온 가슴 뛰게 하는 신비스러운 식물 복수초 꽃말이 이 평하고 터지는 소리 들렸기 때문이다. 겨울 마이산을 오르면 내 안의 소리를 듣게 되고 타자의 소리를 듣게 된다. 얼었던 마음이 녹고 개안(開眼)이요 개심(開心)을 하게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경구가 또 가슴에 새겨진다. 이 모든 게 시인에게는 ‘해빙’이다.

풀어! 풀어! 귀 풀어! 환청이 자꾸 들린다.

세계를 손 안에, 미래를 품 안에, 전남 글로벌 리더!

2019 청소년 미래도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 출발, 일반계 고등학생 20명 참가

전라남도국제교육원(원장 고미영)은 12일간 미국 뉴욕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교육청 센터빌고등학교에서 “세계를 손 안에, 미래를 품 안에, 전남의 글로벌 리더!”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도내 학생자치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한 일반계 고등학생 20명이 참가하는 2019 청소년 미래도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청소년 미래도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열악한 전남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교육체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자치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여러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국제이해에 대한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5회째 실시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글로벌 역량강

화 프로젝트는 미국 뉴욕 Ivy League대학 탐방을 시작으로 UN본부, Time Square, Rockefeller Plaza 등 뉴욕 문화체험을 실시하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교육청 센터빌고등학교 학생의 가정에서 8일 동안 홈스테이를 하며 미국 학교교육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교육청은 2017년 9월 전라남도교육청과 상호학술 교류 및 학생-교직원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4월 국제적 우호 증진과 상호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페어팩스교육청 센터빌고와 헤이필드고 학생 18명이 여수충무고와 목포제일여고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학교교육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담양군 김OO 학생은 “미국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기대된



다”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리더십 역량을 높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국제교육원 고미영 원장은 “2020년에는 전남의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및 체험활동으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가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해광기자

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10

남자 컷 (모하칸)

헤어 디자이너 입문 과정에서 남자 컷의 기본이다. 기본이라면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든 가장 충실해야 할 부분이 기본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고객들이 다시 찾는 인기쟁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많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으로 마네킹으로 컷트를 철저하게 익히고 많은 연습을 걸친다고 하더라도 막상 고객의 머리카락을 커트할 때 각양각색의 두상과 모발을 접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난감할 때가 많다.

특히 짧은 남자 컷은 두상이 드러나서 두상의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파악하고 모발이 짧을 때 곱슬거가 더 생기는지 길 때 더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재량이 있어야 정교한 컷이 가능하다.

모호크족에서 유래한 모호크 헤어스타일 (모하칸 헤어 스타일)은 남자 고객들이 많이 연출하는 헤어스타일이다. 스포츠스타일이나 상고스타일보다 멋스럽고 정사 같은 강인함을 표현하고 개성을 부각하기에 좋은 스타일이다.

구례에서 방문하는 초등학생 단골은 뺨치는 머릿결과 너무 많은 슛으로 정리정돈이 쉽지 않다. 부모님의 권유로 짧은 모하칸 스타일을 하는데 더 어릴 때는 짧은 머리가 싫어서 매번 부모님과 의견충돌을 보이기도 했으나 조금 컸어 든 후로는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모하칸 스타일인 걸 알고 스스로 기본 좋게 컷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온 고객님 역시 모하칸 스타일 만이아인데 매번 같은 스타일이 지루해질 때면 프런트사이드 포인트(front side point)에 스크래치(scratch)를 넣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임팩트(impact)를 주면 좋아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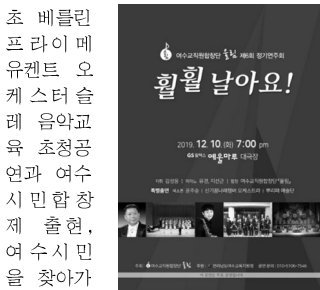
헤어 디자이너의 요소 중 고객과의 소통은 참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뛰어난 헤어 디자이너라고 스스로 자부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만족이 없다면 그건 착각일 뿐이다.

전문가로서 전문가다운 카운슬링(counseling)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소통이 바탕이 되어 고객이 만족스러워할 때 헤어 디자이너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고객과 나누는 기쁨과 행복이기에 미용사란 직업이 매력적인 것이다.

여수교직원합창단 ‘올림’ 정기공연 ‘월월 날아오’

여수교직원합창단 ‘올림’이 제6회 정기연주회를 12월10일 ‘월월 날아오’라는 주제로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여수교직원합창단 관계자에 따르면 ‘올림’은 지역 교직원들에게 음악적 소질 계발과 합창음악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다. 지역 교직원들의 음악적 소양을 함양하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학교음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음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합창음악의 보급 및 장려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향유하는데 기여하고 단원 상호간의 화합과 외세가가 추구하는 배려와 나눔이 있는 모임을 추구한다. ‘올림’합창단은 2014년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호



최현환기자

재능기부 봉사단체 충화밴드 ...권오봉 시장으로부터 표창장

재능기부 봉사단체인 ‘충화밴드’가 지난 22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인정받아 권오봉 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충화밴드는 지난 2017년에 백충화단장(알토세소폰), 최현환(사회)이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서혁신(노래), 추상미(노래), 강기우(음향)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행사규모에 따라 여수시립 합창단과 여수시립 국악단 등 전문 뮤지션들의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충화밴드는 여수환경캠페인 음악회와 봉화산 무장애 숲 조성하기를 위해 숲



속힐링 음악회를 4회 연속 개최하는 등 여수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연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위한 공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한해광기자



대신정기화물·택배



대표 장 동 연

H · P : 010-8610-5116



여수 주삼영업소. 여수시 좌수영로 948-4 (봉계동)

TEL. 061) 691-6226

여수 오림영업소. 여수시 만성로 131 (미평동)

TEL. 061) 652-5116

FAX. 061) 652-5939

E-mail. op3503@hanmail.net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기획특집으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일부 출마예정자중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예정자가 있음을 밝힙니다. 여수일보 특집 질문 4탄에 참여를 원하는 출마예정자는 연락바랍니다.)

질문: 여수지역 현안사업 중 예산확보가 시급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수지역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비확보를 위하여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주승용 국회의부의장
(여수를 국회의원) (답변서도착: 11월27일)

여수시는 수산도시에서 여수산단 입주로 중화학산업도시로 2012년 EXPO 개최를 기점으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사회전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 필요한 예산 항목을 적시에 본다.

1.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의 점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비 조기 확보
2. COP 유치 등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예산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예산
4. 골목상권 살리기와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예산
5. 어르신, 여성, 청소년 등 우리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
6. 여수산단 주변 마을 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 보호대책 예산
7.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산단 조성예산
8. 문화관광 콘텐츠의 완성 -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비
9. 아시아 최고 명품 경조리조트 조기완성을 위한 연륙교 설치 예산
10. 섬 주민 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섬 관광 자원화 예산

정기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답변서도착: 12월03일)

여수지역 현안사업중 예산확보가 시급한 사업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추진 및 기본·실시 설계비 국비 지원이라 생각하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친분이 있는 중앙당 국회의원 및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여수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웅주 의원
(국회의원) (답변서도착: 11월29일)

여수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수산단 용지난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 2차단의 조기 완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오전산단과 화양농공단지의 산업 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으로,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하고,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과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의 추가 유치가 힘써야 합니다.

또한 여수 수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양식사업 및 어선감척사업, 어촌뉴딜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어업 환경 구축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돌산과 금오도 연도교 건설과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최도자 의원
(국회의원) (답변서도착: 11월27일)

많은 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는 많은 시민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터전이지만 산재 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체험?실습식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 설치가 시급했지만 그동안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제가 2017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사용역비 1억 원을 예산에 추가시켜 이 사업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예산안에 빠져있던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추가 반영시켜 사업이 제대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광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시에 유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재활전문 의료시설을 여수에 유치해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58억 원 중 국비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 시민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화수 전행정관
(전.청와대국가안전보장기획) (답변서도착: 11월29일)

여수산단은 석유화학산업이 주력으로 월간역원 생산실적 대비 고용자수는 전국 국가산단중 가장 낮아 0.44명에 불과합니다. 즉,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낮은데 반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은 많아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 중인 중국에 비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첨단화학소재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인 정부는 향후 탄소섬유에만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을 예정입니다.

첨단화학소재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지역은 대규모 화학공단이 있는 여수이므로 국비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 재구조화를 위해 화학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집적단지와 민간 R&D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석유화학, 정제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여수산단에 산업기반 구조의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화학소재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산을 끌어와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중정기, 설비현대화 및 관련 학과개설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여수산단을 첨단화학소재 단지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답변서도착)

여수지역 현안 사업 중 가장 시급한 사업은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늘리기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일자리는 여수산단 입주기업체의 의무적으로 여수출신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수당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관광객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도로망 개선이 시급하다. 순환도로 개설이나 경도 연결도로 개설들이 시급하다고 본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쓰겠다.또한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것도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도로망 개설은 국비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순히 관광용 도로는 예산확보면에서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포화상태로 산업도로 추가개설 명분으로 요청하면 국비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본다.

중앙인맥을 활용한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당당하게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주요사업계획을 잘수립하여 예산부처 및 해당부처를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온몸으로 열정을 가지고 밤낮없이 뛰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주철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답변서도착: 11월28일)

“박람회장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여수의 미래 핵심 사업”
3~4년 증가하면 여수 방문객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업은 여수관광의 제도약을 위한 미래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국비 지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하나 된 의견만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남도도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도는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해 총 1149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련부처에서 국비 지원을 통한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문재인정부와 잘 통하는 여당소속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도와 신월동을 연결하는 연륙교에 대한 정부결정을 보더라도 문재인정부가 여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는 정부와 통할 수 있는 여당소속 일꾼이 역량을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순민
(더불어민주당 전 위원장) (답변서도착: 12월8일)

여수 엑스포역과 여천역 복선전철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여수엑스포 이후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했으며 명실상부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 승객(엑스포역·여천역)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두 역의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KTX를 증차 할수 있으며 활발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엑스포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천역 주변, 즉 역세권 개발을 통해 여천역을 찾는 관광객 편리성을 극대화 하며 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확보에 필요한 사업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각 주무부처 장관 등을 만나 집요하게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확보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와 국회의원측은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을 다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이 공급하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분양

편리한 교통망(장흥IC 5분/국도 2호선 연결)

자형한 용지, 풍부한 용수, 쾌적한 환경

입지 보조금 및 세제 감면 지원

■ 입지특성

농·식품물 가공, 급속 기계, 포장업 등

■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조팀 061) 280-0642

- 장흥군청 사업경제과 061) 860-0787

공공개발 투자 사업에 대한 전남개발공사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내선 112 www.jndo.co.kr